

조선시대 과거 수험서 *

박 현 순 **

1. 머리말
2. 과거 수험서의 범주
 - 1) 시험 과목과 기본 교재
 - 2) 수험용 독서물
3. 기본 교재의 가공
4. 科文集의 편찬과 활용
 - 1) 15세기 중국 과문 교재의 간행
 - 2) 16세기 조선 科文選集의 간행
 - 3) 필사본 科文 抄集의 편찬
5.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시대 문과는 文翰官僚를 선발하는 시험으로 經史에 대한 이해와 식견, 文才 전반을 평가하였다. 시험 준비도 이에 맞추어 유교 경전과 역사서, 문장서의 학습에서 출발한다. 과거 공부와 일반적인 학업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科文은 관료의 공적인 글쓰기를 염두에 둔 실용문의 일종으로 독특한 문장 형식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학습이 요구되었다. 나아가 과거는 합격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으로 보다 효율적인 공부가 요구되었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8-361-A00007).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교수.

다. 이에 따라 과거 준비를 돋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의 수험서가 편찬되었다.

과거 수험서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황지영은 과거수험서를 “과거시험에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요령을 제공하는 지침서로서, 作文選集 혹은 모범답안의 모음집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¹⁾ 이것은 科文의 작성을 중심으로 한 설정인 듯하다. 그러나 기본 교재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책을 교재로 선택하는가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나아가 과거 수험용으로 경서 등 기본교재의 초집이나 선집이 다량으로 편찬되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수험서의 범주는 보다 확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조선시대 과거 수험서에 대한 연구는 조선에서 간행된 중국 서적의 조선판본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와²⁾ 필사본 科文抄集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³⁾ 수험과정에서 폭넓은 서적을 학습한 것에 비하면 연구 영역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게다가 관련 연구도 많지 않아 과거 수험서에 대한 종합적인 조망은 쉽지 않다.

조선에서 활용된 수험서는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하였다. 우선 기본 교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익히기 위한 경서, 역사서, 문장서의 抄集이나 選集이 다량으로 편찬되었다. 또 과문을 익히기 위해서는 중국과 조선의 과문을 모은 간행본 科文選集과 우수 답안이나 習作을 모은 필사본 科文抄集, 개인의 科作과 습작을

1) 황지영, 2012 『명청출판과 조선전파』, 시간의물레, 207면.

2) 千惠鳳, 1998 「朝鮮朝의 乙亥小字體木活字本 《御試策》: 元나라 銅活字本에 대한 修正論」 『서지학연구』 15; 현영아, 2005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對策」의 書誌的 研究」 『인문과학연구논총』 27,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류화정, 2013 「조선 전기 문선집『宋播芳』·『元播芳』小考: 자료 소개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51; 당윤희·오수형, 2011 「唐宋八大家 文選集의 조선에서의 수용과 유통: 한국 소장 唐宋八大家 古文 選集 판본을 중심으로」 『중국문학』 66; 당윤희, 2011 「朝鮮의 中國本 詩文集 流入, 刊行 및 受容 양상 略考: 唐宋八大家를 중심으로」 『중국문학』 69; 김소희, 2012 『중국본『史記』·『漢書』의 조선 유입과 編刊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3) 황위주, 2013 「科舉試驗 研究의 現況과 課題」 『대동한문학』 38; 황위주, 2014 「『離騷遺香』을 통해 본 조선후기 '科賦'의 출제와 답안 양상」 『대동한문학』 40; 허경진·최영화, 2014 「科試 참고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 受驗 문화의 한 국면: 科文 規式 참고서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40.

모은 필사본 科文私集 등 다양한 책이 편찬되었다.⁴⁾ 조선시대 과거 수험서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다양한 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범주화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조선시대 과거 수험서를 조망하기 위한 시론적인 연구다. 개별적인 서적을 망라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수험서의 범주화를 시도하며 그 경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어떤 책을 공부하였는지 살펴보고 각 범주의 수험서들이 어떻게 편찬·유통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조선의 교육 과정은 과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만큼 과거수험서는 조선 사회 지식인들이 교양과 학식을 습득하는 기초 교재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과거 수험서를 통하여 조선 지식인들이 공유하는 기초 교양에 대한 이해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수험 과정에서 활용된 참고서는 크게 간행본과 필사본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간행본은 다시 官版本과 坊刻本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 명말 이후 참고서의 상업 출판이 크게 성행한 것과 달리⁵⁾ 조선에서는 방각본 수험서의 존재가 매우 미미하였으며, 그 자리를 필사본 초집들이 채우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조선의 과거 준비에서는 필사본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글에서는 어떤 책이 간행되고 어떤 책이 필사본으로 활용되었는가 하는 점에도 유의하였다.

4) 자료상에서 抄集과 選集의 성격 차이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본고에서는 혼란을 막기 위하여 抄集은 필사본, 選集은 간행본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또 우수 과문을 뽑아 모은 책은 간행본은 科文選集, 필사본은 科文抄集, 개인의 科作이나 習作을 모은 책은 科文私集, 정조대 『賓興錄』처럼 특정한 시험의 합격 답안을 모은 책은 科作集으로 구분하여 지칭하였다.

5) 중국 과거 참고서의 상업 출판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Kai-wing Chow, 1996 "Writing for Success: Printing, Examination, and Intellectual Change in Late Ming China," *Late imperial China* 17: Kai-wing Chow, 2004 *Publishing, culture, and power in early modern China*, Stanford University Press; 백광준, 2008 「명대 과거시험 참고서 출판과 출판시장의 발전」 『中國文學』 54: 황지영, 앞의 책.

2. 과거 수험서의 범주

1) 시험 과목과 기본 교재

조선시대 문과는 학식과 文才를 갖춘 文翰官僚를 선발하는 시험이었다. 문과 급제자는 승문원, 성균관, 교서관에 배속되어 權知로 수습기간을 거친 후 관료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다양한 관서에 배치되었으나 모든 관원이 문관으로 충원되는 관서는 사간원, 홍문관, 예문관, 세자시강원, 성균관, 춘추관, 교서관, 경연(영사 및 참찬관 제외)으로 제한되어 있었다.⁶⁾ 이 관서들이 담당하는 文翰과 學術, 諫諍 분야가 문관이 담당하는 핵심적인 직무였다.

조선시대 문과의 시험 과목은 태조의 즉위 교서에서 이미 그 대략이 제시되었다.⁷⁾ 이를 근간으로 조정을 거친 과목들이 『경국대전』을 거쳐 보다 정비된 형태로 『속대전』에 수록되기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확인되는 시험 과목은 四書三經의 강경, 四書疑·義와 論, 賦와 表·箋, 對策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상 조선의 과거제도를 입안한 정도전은 『朝鮮經國典』에서 각 과목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전하가 즉위하여 과거의 법을 가감하여 성균관에 명하여 四書五經으로 시험하게 한 것은 옛날 明經의 뜻이요, 禮部에 명하여 賦와 論으로 시험하게 한 것은 博學宏詞의 뜻이요, 연후에 對策으로 시험하는 것은 옛날의 賢良方正·直言極諫의 뜻입니다.⁸⁾

위에 보이는 명경, 博學宏詞, 賢良方正, 直言極諫은 고대 중국에서 시행된 과거의 명칭이다. 특히 박학평사과, 현량방정과, 직언극간과는 한대 아래 천자가 특별히 인재를 구하기 위해 시행했던 制科의 명칭으로 科名에 시험의 목적이 드

6) 『경국대전』吏典 京官職.

7) 『태조실록』권1, 태조 1년 7월 28일(정미).

8) 鄭道傳, 『朝鮮經國典』禮典 貢舉(1394) “殿下卽位 損益科舉之法 命成均館試以四書五經 蓋古明經之意也 命禮部試以賦論 古博學宏詞之意也 然後試以對策 古賢良方正直言極諫之意也.”

러나 있다.⁹⁾ 이에 기초한 정도전의 설명은 문과의 시험 내용이 경학에 대한 이해, 학식과 문장력, 현량방정·직언극간과 같은 관료로서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자질은 곧 성균관, 예문관, 승문원, 교서관, 사간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다. 곧 국가에서 제정한 시험 내용은 문관이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와 관련된 자질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조선에서는 새롭게 表·箋을 시험 과목으로 채택하였다.¹⁰⁾ 표·전은 중국과의 외교 문서에 사용되는 문체로 보다 실무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에 대해 정조는 표문을 시험과목으로 채택한 것은 館閣의 문한 관료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¹¹⁾ 표·전의 채택은 문과가 문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이었다는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

조선의 개국과 함께 구체화된 시험 과목은 곧 성균관, 사학, 향교의 교육 과정으로 자리 잡았다. 1447년(세종 29) 예조와 의정부에서는 유생들이 講經 외에 제술도 익힐 수 있도록 열흘마다 表·賦·對策 중 한 편과 義·疑 중 한 편을 짓도록 하였다.¹²⁾ 그 결과 선초에 제정된 學令에는 관학의 교육 내용이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항상 四書·五經 및 諸史 등의 글을 읽으며, 『莊子』·『老子』·佛經의 雜類와 百家子集 등의 책을 끼고 다녀서는 안된다.

매월 製述은 초순에는 疑·義 혹은 論으로 하고, 중순에는 賦·表 혹은 頌·銘·箴으로 하며, 하순에는 對策 혹은 記로 한다.¹³⁾

9) 祝尚書, 2010 「唐宋制科盛衰及其歷史教訓」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0-5.

10) 중국에서는 원나라 때부터 詔誥表章이 정식 과거과목으로 채택되었다(和田正廣, 1993 「明代科舉制度の科目の特色—判語の導入をめぐって」 『法制史研究』 43, 創文社).

11) 『정조실록』 권1, 정조 즉위년 5월 28일(무술) “明經之必以四書三經爲法者 蓋欲得經行之士 而亦使爲土者 必皆從事於斯 而不馳騁於他岐也 製述之必以論策表賦爲法者 論以觀其論議 策以觀其時務 賦以取其文理 表以用之館閣 其所定制 亦皆有義.”

12) 『세종실록』 권116, 세종 29년 5월 7일(정유).

13) 『太學志』 권5, 「章甫」 學令.

학령에서 제시한 사서오경과 역사서의 독서, 의·의, 논, 부, 표, 송, 명, 잠, 대책, 기의 제술은 곧 문과의 시험 과목이었다. 그 가운데 특히 제술은 식년시 문과의 초장, 중장, 종장 시험의 내용을 旬製의 형태로 시행한 것으로 관학의 교육과정이 과거 시험 과목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보다 분명히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문관의 업무 내용에 맞추어 문과의 시험 내용이 제정되었고, 이에 맞추어 官學의 교육과정이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문관의 업무, 문과 시험 과목, 관학의 교육 과정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었다.

문관의 업무, 문과, 교육 과정이 통합된 체제 하에서 각 단계에 속한 문관, 과거 응시자, 피교육자로서의 유생이 읽어야 하는 책에는 차이가 없었다. 다만 각자가 속한 단계에 따라 그 전문성에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조선 초기 교육용 교재로 활용된 서적은 국가에서 각읍 향교에 하사한 서적들을 통해 그 대략을 살펴 볼 수 있다. 조선은 건국 초기에 다양한 서적들을 간행하여 보급하고, 미처 서적을 구비하지 못한 향교에는 직접 서적을 하사하였다. 15세기 국가에서 지방 향교나 감영에 하사한 서적으로는 우선 사서오경, 『소학』, 『효경』, 『성리군서』, 『성리대전』, 『근사록』과 같은 성리서, 『資治通鑑綱目』, 『通鑑節要』(일명 少微通鑑)와 『左傳』, 『續編節要』(일명 通鑑續編, 宋鑑) 등의 역사서, 『楚辭』, 『柳文』, 『韓文』, 『古文眞寶』 등의 문장서가 있었다.

한편 1435년(세종 17) 詩學의 진흥을 위해 성균관 생원들에게 익히게 한 책으로는 『楚辭』와 『文選』, 李白·杜甫·韓愈·柳宗元·歐陽脩·王安石·蘇軾·黃庭堅 등의 詩가 있었다.¹⁴⁾ 이상의 서적들을 관학 교육의 기본 교재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조선초기 지방 鄉校 下賜 書籍

하사처	서책	날짜
제주향교	사서오경, 『성리대전』, 『소학』	세종 17년 9월 21일(기축)
각읍향교	『성리대전』, 『사서오경대전』	세종 17년 10월 25일(계해)

14) 『세종실록』 권68, 세종 17년 6월 26일(병인).

각읍향교	『直解小學』	세종 23년 10월 18일(신사)
청주향교	『通鑑訓義』, 『性理群書』, 『近思錄』, 『通鑑綱目』, 『柳文』, 『韓文』, 『通鑑節要』, 『集成小學』, 『絲 綸集』	세종 26년 8월 14일(경신)
평안도 무창·우예·위원	사서, 『소학』	세종 27년 1월 29일(계묘)
평안도 자성군	사서삼경	문종 1년 4월 6일(갑술)
영안도	사서오경, 『通鑑』, 『소학』, 『楚辭』, 『유문』, 『古 文眞寶』	성종 2년 7월 26일(정유)
영안도	사서, 『소학』, 『효경』	성종 12년 2월 16일(경신)
평안도	『少微通鑑』, 『左傳』, 『續編節要』	성종 14년 12월 11일(경오)

* 전거: 『조선왕조실록』.

조정에서 하사한 서적들은 조선후기 문인들이 後學을 위해 작성한 독서목록에도 그대로 등장한다. 비록 서적의 종류가 보다 다양화되기는 하였지만 사서오경과 성리서, 『강목』, 『송감』, 『통감절요』, 『고문진보』, 『한문』, 『유문』, 『초사』, 『문선』, 이백과 두보의 시는 공통적으로 독서 목록에 올라 있다.¹⁵⁾ 이 책들은 초기 교육에서부터 과거 응시, 문관들의 업무 수행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숙달이 요구되는 기본 교재였다.

2) 수험용 독서물

학교의 교육 과정과는 별개로 조선초기부터 과거 공부를 위한 전문 수험서도 존재하였다. 과거 준비를 위해서는 시험의 내용과 형식에 맞추어 공부법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세종은 과거 응시를 위해 익혀야 하는 책으로 『源流至論』과 『三場文選』, 『策

15) 李植, 『澤堂集』 別集 권14, 「示兒孫等」(1642); 林象德, 『老村集』 권4, 「幼學讀書規模」; 尹愬, 『無名子集』 文稿冊 10, 「讀書次第」.

學提綱』, 『丹墀獨對』, 『宋元播芳』을 꼽았다.¹⁶⁾ 이 책들은 원대에 간행된 類書나 科文集, 文選集으로 고려 때부터 과거 수험서로 활용된 책으로 보인다. 이 중 『삼장문선』과 『송원파방』은 15~16세기에 조정에서 간행하여 보급한 바 있다. 특히 원대의 科作을 모은 『삼장문선』은 과문의 典範으로 활용되었다.¹⁷⁾

한편 16세기에는 『東國壯元策』, 『東國壯元集』, 『東人策選』, 『東策精粹』, 『殿策精粹』, 『震英粹語』와 같은 조선의 책문 선집도 꾸준히 간행·유통되었다. 또 중국의 역대 대책문을 선집한 『歷代文選策』이나¹⁸⁾ 논의 선집인 『東國論選』이 간행된 것도 확인된다.¹⁹⁾

과거 준비에 보다 초점을 맞춘 독서목록은 李植(1584~1647)이 자손들을 위해 쓴 「示兒孫等」(1642)을 통해 그 대개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식의 글은 자제들의 수학 전반을 다룬 것으로 先讀, 次讀, 科文工夫의 세법주로 나누어 구체적인 공부법을 제시하였다.

선독과 차독은 경서와 역사서, 성리서의 독서법에 대한 것으로 필독서는 선독, 선택서는 차독으로 구분하였다. 선독할 책으로는 사서와 『시경』, 『서경』, 역사서인 주희의 『자치통감강목』과 『송감』을 제시하였다. 차독은 개인이 호오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책으로 『주역』, 『춘추』 4전, 『예기』, 『의례』, 『주례』의 3례가 있다. 성리서는 별도로 언급하였다. 이 부분은 기본교재의 학습에 관련된 모범적인 공부법에 해당된다.

16) 『세종실록』 권44, 세종 11년 5월 28일(계유); 『세종실록』 권55, 세종 14년 3월 11일(경오).

17) 『단종실록』 권2, 단종 즉위년 8월 23일(계미).

18) 화봉문고 창립50주년기념전시회 도록, 2013 『아나로그에서 디지털세계를 연 한국 고활 주의 세계』, 134면.

19) 심경호, 2002 「論體散文選集 《東國論選》」 『국문학 연구와 문헌학』, 태학사.

〈표 2〉 李植(1584~1647)이 제시한 과거 공부를 위한 독서목록

구분	서적
先讀	『詩經』, 『書經』, 『論語』, 『孟子』, 『中庸』, 『大學』 『綱目』, 『宋鑑』(『通鑑少微節要』, 『史略』)
次讀	『周易』, 『易學啓蒙』, 『春秋左氏傳』, 『春秋胡氏傳』, 『春秋公羊傳』, 『春秋穀梁傳』, 『禮記』, 『儀禮』, 『周禮』
(성리서)	『小學』, 『家禮』, 『近思錄』, 『性理大全』, 『性理群書』, 『心經』, 『二程全書』, 『朱子全書』
科文工夫	韓·柳·蘇文, 『文選』, 八大家文, 『古文眞寶』, 『文章軌範』 중 1 『漢書』·『史記』 초집 荀子·韓非子·楊雄의 저술 초집 『文選』, 『楚辭』 초집 李白·杜甫·韓愈·蘇軾·黃庭堅의 7언 초집 四六文 『老子』, 『莊子』, 『列子』 歷代史全書, 東國史及文集等。經國大典, 國朝典故, 小說 東人科製 초집

* 전기: 李植, 『澤堂集』別集 권14, 「示兒孫等」(1642).

이식이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과문 공부를 위한 독서법이다. 이식은 독서목록에서 먼저 韓·柳·蘇文, 『文選』, 八大家文, 『古文眞寶』, 『文章軌範』 등 전통적인 문장학습서를 제시하였다. 이 책들은 관학에서도 통용되던 기본 교재에 해당된다. 그러나 관학의 교육과정과는 다른 책들도 교재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문장 공부를 위한 책으로 사마천의 『사기』, 반고의 『한서』와 함께 순자, 한비자, 양웅 등의 百家書, 노자·장자·열자 등 노장서를 제시하였다. 국가의 정규적인 교육과정에서는 백가서나 노장서는 이단서로서 배척되었지만 문장 공부에서는 이 책들이 당당히 한 견을 차지하고 있었다. 실제 노장서나 백가서는 과거 준비 뿐 아니라 일반적인 문장 수업에도 널리 활용되었다.²⁰⁾ 이 영역은 문장 공부와 과문 공부의 공통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20) 李玄錫, 『游齋集』 권22, 「游齋六家」; 林象德, 『老村集』 권4, 「幼學讀書規模」; 尹愬, 『無名子集』 文稿 10, 「讀書次第」 “於是兼看楚辭·戰國策·文選·李杜詩·唐宋八大家 以及諸子百家書 以極其博 而若異端之書不觀可也 置其學 只觀其文 以爲文章之一助亦可也.”

다음으로 四六文을 따로 익히도록 한 것이다. 사류문 공부는 외교문서나 국왕 문서 등 국가의 공문서를 짓기 위한 기초 학습으로 선조부터 국가에서 관료들에게 『송파방』과 『원파방』을 통해 表·箋을 익히도록 한 바 있다. 과거 시험에서도 表·箋을 중시하여 배점을 두배로 하는 倍劃制度를 도입하였을 뿐 아니라 16세기 후반부터는 別試·庭試 등에서 출제 빈도도 높았다. 따라서 표·전에 능하면 그 만큼 급제 확률을 높일 수 있었다. 이식이 사류문을 강조한 것은 문과 급제자들이 담당해야 할 업무의 측면과 과거에서 합격 가능성은 높인다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한 것일 것이다. 이식은 스스로 중국 변려문의 선집인 『儻文程選』을 편찬한 바 있다.

다음으로 이식은 우리나라의 科文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科文은 일반문장과 달리 특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었는데, 중국 經義 시험의 八股文이 대표적이다. 우리의 경우 팔고문만큼 형식이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일반문장과 구분되는 科體라는 특수한 형식이 있었으며, 유행하는 형식도 변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時文인 과문을 익히기 위해서는 과제문을 익히는 것도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공부법의 측면에서 주목되는 것은 우선 문과에서는 강경과 제술, 진사시에서는 詩와 賦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문과가 강경 위주의 식년시 와 제술 위주의 慶科로 이원화되고, 두 문제가 출제되는 시험에서도 사실상 原篇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관행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²¹⁾ 이식은 선택과 집중으로 합격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문장공부에서는 抄集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익히도록 하였다. 韓柳蘇文, 『文選』, 八大家文, 『古文眞寶』, 『文章軌範』 중에서 한 책을 읽되, 나머지는 모두 초집을 만들어 『한서』·『사기』 1책, 순자·한비자·양웅의 저술 1책, 『문선』과 『조사』 1책, 칠언 1책, 사류문 1책, 동인과제 여러 책으로 스스로 초집을 만들어 반복과 암송을 통하여 작문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 것이다.

초집을 활용하는 방법은 이식이 창안한 것은 아니었다. 선조부터 유생들이 초

21) 박현순, 2014 『조선후기의 科舉』, 소명출판, 126-127면 및 134-138면. 과거에서 두 글제의 글을 작성하는 경우 앞쪽에 쓴 답안을 原篇, 뒤쪽에 쓴 답안을 備篇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상 원편의 성적으로 당락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비편은 일찍부터 형식화되었다. 비편의 작성은 1714년(숙종 40)에 폐지되었다.

집만을 익힌다는 지적은 자주 등장한다.²²⁾ 초집은 과문의 작성에 유용한 문장들을 뽑아 모은 것으로 고금의 명문은 물론 당대의 유생들이 지은 글도 대상이 되었으며,²³⁾ 경서도 초집을 작성하여 공부하는 경우도 있었다.²⁴⁾ 초집을 위주로 한 공부는 광범위한 범위의 독서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익히는 공부법으로 널리 퍼져 있었다.

이식이 개인적으로 초집을 작성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과 달리 이를 공식화한 文選集들은 조선전기부터 꾸준히 간행되었다. 조선전기에 이미 『한서』와 『사기』 열전이나 당송팔대가의 문집을 문선집의 형태로 간행한 경향이 확인된다.²⁵⁾ 또 이식보다 늦은 시기에 활동한 林象德(1683~1719)은 아예 『選文精粹』, 『選賦』와 같은 조선에서 간행된 고문의 문선집을 필독서로 제시하였다.²⁶⁾ 두 책은 모두 『문선』의 선집으로 『選文精粹』는 산문, 『選賦』는 부의 일부를 뽑아 만든 책인데, 이 외에 문선의 또 다른 선집인 『選文掇英』도 간행된 바 있다. 이식이 개인적으로 초집을 만들어 학습할 것을 권장한 것과는 별도로 이미 여러 형태의 문선집들이 간행되어 수험용 학습서로 널리 유통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상과 같은 서적이나 공부법으로 수험 준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문인들의 공부에는 더욱 폭넓은 서적이 활용되었다.²⁷⁾ 반면 윤기는 類書와 科作을 위주로 독서 범위를 극히 제한하여 과거 공부를 한다고 세태를 비판하기도 하였다.²⁸⁾ 그 양상은 개인마다 또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떤 책을 활용하는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이식이 소개한 공부법은 과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성인들을 위한 보다 기초적이고 모범적인 공부법이었다고

22) 『태종실록』 권21, 태종 11년 5월 8일(무진); 『세종실록』 권39, 세종 10년 2월 12일(갑자).

23) 『세종실록』 권50, 세종 12년 10월 25일(임진).

24) 『연산군일기』 권5, 연산군 1년 5월 28일(경술).

25) 당윤희·오수형, 2011 앞의 논문; 당윤희, 2011 앞의 논문; 김소희, 2012 앞의 박사학위논문.

26) 林象德, 『老村集』 권4, 「幼學讀書規模」.

27) 문인들의 폭넓은 과문 공부는 金錫胄의 사례를 통해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병주, 2014 「金錫胄의 科文學習 研究」 『대동한문학』 40.

28) 尹愬, 『無名子集』 文稿冊 10, 「讀書次第」.

하겠다.

이 글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독서물과 공부법을 토대로 과거 수험서를 기본 교재를 가공한 선집·초집류와 과문집으로 나누어 보았다. 물론 이것은 수험서로 활용된 모든 책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과거 공부에 맞춘 수험서의 양상을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장을 달리하며 각 범주의 수험서가 편찬·간행되는 양상과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3. 기본 교재의 가공

과거 준비는 기본 교재의 학습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경서, 역사서, 문장서를 아우르는 기본 교재의 폭도 광범위하였다. 따라서 수험 준비를 위해서는 기본 교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 때문에 조선전기부터 보다 간략한 형태의 경서나 역사서·문장서의 초집이나 선집이 발달하였다. 아래에서는 먼저 기본 교재들이 가공을 거쳐 유통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공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서삼경이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사서삼경은 대부분 1427년(세종 9)에 경상도·전라도·강원도 감영에서 간행된 『사서오경대전』을 저본으로 한 것으로 이후 다양한 판본이 제작 유통되었다.²⁹⁾ 그러나 과거 응시를 위해 방대한 양의 『사서오경대전』을 읽을 필요는 없었다. 이 식의 공부법에서도 내용이 함축적인 『대학』, 『중용』, 『논어』 외에 『시경』, 『서경』, 『맹자』, 『주역』은 모두 대문을 위주로 공부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조선전기 판목의 보유 현황을 소개한 『고사촬요』에는 사서삼경의 판본 가운데 다수의 大文 판본이 보이는데, 이것은 대문을 이용한 학습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³⁰⁾

과거에서 경학 시험은 식년시 문과의 사서삼경 강경과 식년시·증광시 문과와

29) 안현주, 2007 『조선시대 <四書>의 판본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0) 선조 18년본 『고사촬요』에는 논어대문 2종, 맹자대문 5종, 대학대문 2종, 용학대문 1종, 서전대문 2종, 시전대문 4종, 예기대문 1종, 주역대문 1종, 춘추대문 1종 등이 수록되어 있다.

생원시 四書疑·五經義 제술 시험이 있었다.³¹⁾ 강경은 사서삼경의 대문을 암송하는 句讀과 글자와 뜻을 해석하는 訓釋, 文義을 논하는 講論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서의는 사서 중 2서 이상의 대문에서 공통적으로 논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그 의혹을 변파하거나 그 뜻을 논하게 하는 시험이었다.³²⁾ 오경의는 오경의 대문에서 각각 문제를 출제하여 그 뜻을 논하게 한 시험이었다.

경학 시험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책이 정조대에 편찬된 『樓板考』에 소개된 『三經四書講經』과 『經書類抄』이다.

『누판고』에서는 『삼경사서강경』에 대하여 “經文만 싣고 訓詁를 줄였다. 明經 科의 記誦을 위한 책이다.”라고 소개하였다.³³⁾ 이 책은 현재 실물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히 어떤 체제의 책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누판고』의 기록을 통해 주석을 통한 文義의 이해보다는 經文의 암송에 초점을 맞춘 책이었던 듯하다. 이 책은 평안도 감영에 목판이 소장되어 있었다.

조선후기에는 문과의 시험 종류가 다양해짐에 강경 위주의 식년시에 응시하는 講經生과 제술 위주의 경과에 응시하는 製述生이 분화되었고, 강경 시험에는 주로 지방 유생들이 응시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평안도에서는 강경 시험을 위주로 한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18~19세기 식년시 급제자 중에서 평안도 유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³⁴⁾ 이러한 추세 속에서 평안도 감영에서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강경 시험용으로 특화된 『삼경사서강경』을 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서류초』는 사서오경의 분류 색인서이다. 저자 미상의 책으로 17세기 초중반에 처음 간행된 후 여러 차례 목판본과 방각본으로도 간행되었다.³⁵⁾ 1730년

31) 『경국대전』에는 식년시 문과에도 五經義 시험이 있다. 그러나 문과의 오경의 시험은 중도에 폐지되어 『속대전』에서는 삭제되었다.

32) 李來宗, 2013 「疑義의 形式과 그 特性」 『대동한문학』 39.

33) 『樓板考』 권2, 總經類 三經四書講經 四十九券 “不著編人名氏 祇載經文節略訓詁 盖明經記誦之書 關西觀察營藏 周易印紙 六牒十六張一片 書傳印紙五牒一張 詩傳印紙七牒十張一片 大學印紙十張一片 論語印紙五牒十九張 孟子印紙五牒十四張一片 中庸印紙一牒一張.”

34) 박현순, 2014 앞의 책, 285~298면.

35) 이정효, 2013 「『經書類抄』의 인용방식에 관한 小考」 『서지학연구』 54.

(영조 6)에 편찬된 『영남책판고』에는 상주에 목판이 소장된 것으로 전하는데, 『누판고』나 『각도책판목록』에도 동일한 사실이 수록되어 있다.

『누판고』에서는 이 책에 대해 “오경과 사서의 어구를 쪼개 門을 나누어 어휘를 모았다. 經義의 帖括을 위한 책이다.”라고 소개하였다.³⁶⁾ 이 책은 현재 여러 판본이 존재하는데, 天道門, 地理門, 人倫門 등 23개의 문으로 나누고 해당되는 사서오경의 어구를 정리하여 주제에 따라 사서오경에 나오는 어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누판고』에서 ‘經義의 帖括을 위한 책’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이 책은 四書疑와 五經義의 저술을 위한 참고서로 기능하였다. 柳馨遠(1622~1673)은 ‘類抄’를 활용한 공부법이 발달하여 유생들이 經史의 본문을 읽지 않는다고 개탄하였다.³⁷⁾ 유형원의 지적은 역으로 『경서류초』와 같은 경서의 분류 책인서가 시험 준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조선후기 기본교재의 문선집으로 가장 널리 보급된 책 중의 하나는 『選賦』로 보인다. 이 책은 林象德(1683~1719)이 쓴 「幼學讀書規模」에 賦의 교재로 등장하며, 앞서 李玄錫(1647~1703)이 쓴 「游齋六家」에는 문장가들이 익혀야 할 필독서의 하나로 소개되고 있다.³⁸⁾ 『누판고』에서는 이 책을 “굴원의 離騷부터 國朝名家의 글을 수록한 책으로 안동부에 8권의 목판이 소장되어 있다.”고 소개하였다.³⁹⁾

안동부에서 간행한 『선부』는 정식 명칭이 『選賦抄評註解刪補』로 『文選』에서 賦만을 뽑고 註釋을 산절한 책으로, 경오년에 안동부에서 8권으로 초판이 간행되었다.⁴⁰⁾ 판심체가 ‘選賦’로 되어 있는 탓에 흔히 『선부』로 일컬어진 듯하다.

『문선』은 양나라 昭明太子(501~531)가 편찬한 책으로 고대부터 문장서로 보

36) 『누판고』 권4, 子部 類書類 經書類抄 三卷 “不著撰人名氏 割裂五經四書句語 分門類彙 蓋經義拈括之書 尚州牧藏 印紙三牒十二張.”

37) 柳馨遠, 『磻溪隱錄』 권12, 教選攷說 下, 本國選舉制附 “科業之士 惟以抄集爲務 抄集者 摘節經史文字 取其字之對偶 句之相近者 截章分門 以資綴緝 謂之類抄 若覽此則隨題引用 可得裁剪之巧 而其於經史本文 專不留意.”

38) 林象德, 『老村集』 권4, 「幼學讀書規模」; 李玄錫(1647~1703), 『游齋集』 권22, 「游齋六家」.

39) 『누판고』 권5, 集部 楚辭類 選賦 八卷 “不著編人名氏 上起屈原離騷下訖國朝名家 古今世次 往往錯亂失序 安東府藏-刊- 印紙八牒十五張.”

40) 고려대학교 소장 『選賦抄評註解刪補』(만송 D2 A213A 1) 序文.

급되었다. 그러나 60권 30책의 거질로 널리 읽히지는 못한 듯하다. 1437년(세종 19) 예조판서 權踴는 『문선』이 舉業에 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유생들이 즐겨 읽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⁴¹⁾ 이 때문에 1553년(명종 8) 원대 劉履가 『문선』의 시를 선집한 『選詩』를 간행한 바 있는데, 17세기 초반에는 『문선』에서 表, 書, 論, 祭文, 序 등의 산문을 초록한 『選文掇英』(2권 2책)과 『選文精粹』(2권 2책)가 훈련도감자로 간행된 바 있다.⁴²⁾ 『선부』의 간행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선부』는 안동부에서 처음 간행되었고, 책에 저자의 서문과 간기도 있으나 저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간행 시기는 경오년으로 되어 있는데, 『경상도책판목록』(1730)에 이미 그 존재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늦어도 1690년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부』는 여러 판본으로 전한다. 안동부에서 간행한 초간본 『선부』는 『문선』에서 초록한 8권과 부록 1권(권9), 총 9권으로 되어 있고, 저자의 서문과 간기가 있으며, 10행 20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상황을 보면 저자의 서문과 간기를 삭제한 11행 23자본이 보다 널리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選賦抄評註解刪補』라는 동일한 제목 하에 屈原의 작품인 「九歌」, 「九章」, 「天問」을 수록한 책도 있다. 이 책은 별권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9권으로 된 『선부』와 함께 소장된 경우가 많으며, 「楚辭增補」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 책도 있다.⁴³⁾ 『문선』의 선집에 『초사』의 선집을 더한 것이다. 이외에 아동용 교재로 편찬된 2권 2책의 『선부』라는 책도 있는데, 여기에는 『문선』에서 초록한 글과 함께 徐居正, 金駢孫, 李崇仁, 李奎報, 李達衷 등 조선 문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⁴⁴⁾

이상과 같은 판본의 존재 양상을 보면 『누판고』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누판고』에서는 『선부』에 屈原을 비롯한 중국 문인과 ‘國朝名家’, 곧 우리나라 문인의 부를 함께 수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안동부에서 간행한 『선부』는

41) 『세종실록』 권78, 세종 19년 9월 3일(경인).

4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선문철영』 및 『선문정수』 해제 참조.

43) 『選賦抄評註解刪補』(국립중앙도서관 고3714-2). 이 책은 ‘選賦抄評註解刪補卷之一’로 되어 있다. 소장자는 『選賦抄評註解刪補』 9권 5책과 이 책을 묶어 ‘文選賦’로 제명하였다.

44) 『選賦』(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규 1380-v.1~2).

『문선』의 부를 뽑은 책이며, 우리나라 문인의 부를 수록한 것은 아동용으로 간행된 『선부』이다. 당시에 이미 여러 종의 『선부』가 진행되어 혼란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외에 현전하는 『選賦』라는 제명의 책은 훨씬 더 다양하여 각기 다른 내용을 수록한 필사본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고, 직접 ‘選賦’를 필사했다는 기록들도 있다.⁴⁵⁾ 이때의 ‘선부’는 『선부초평주해산보』라기보다는 ‘『文選』의 賦’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선부』 외에도 『문선』의 賦를 초록한 초집이 광범위하게 편찬,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시험과 관련하여 『문선』이 주목된 것은 1553년(명종 8) 尹春年이 주도하여 과거제 개혁을 시도하였을 때이다. 윤춘년은 유생들이 律賦를 통해 四六文을 익히게 한다는 취지로 문과와 생원·진사시에 『文選』의 강독 시험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 적이 있다. 이 방안은 채택되지 않았으나 이를 계기로 李選注本 『문선』을 전라도 김영에서 간행하게 되었다.⁴⁶⁾ 그리고 광해군 때에는 李爾瞻이 詩賦를 장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원·진사시에서 이백과 두보의 시와 함께 『문선』을 강하게 할 것을 진언한 바 있다.⁴⁷⁾ 『문선』이 賦를 익히기 위한 교본으로 주목된 것이다.

조선후기에 『선부』나 선부 초집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편찬된 것은 영조대 아래 문과 시험 과목이 賦를 위주로 출제되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⁴⁸⁾ 『문선』을 토대로 한 문선집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으나 출제가 부를 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선부』가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문장 수업의 필독서로 활용된 『한서』와 『사기』 열전의 선집도 다양한 형태로 간행되었다. 현재 1541년 명례방에서 간행된 『漢書列傳』을 필두로, 洪春卿의 『한서열전』(1543), 安璋의 『漢書傳抄』(1566), 崔峴의 『漢史列傳』(1607), 車天輅 등의 『史贊』(1612), 편자 미상의 『史漢一統』(1649~1653), 『馬史抄』(~1669), 『漢

45) 李世白, 『霧沙集』 권9, 「題選賦後」(1691); 『選賦』(필사본 1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서번호 古朝45-나12, 82면).

46) 『명종실록』 권14, 명종 8년 6월 9일(갑신).

47) 『광해군일기』 권91, 광해군 7년 6월 18일(계사).

48) 조선후기 문과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는 박현순, 2014 앞의 책, 191-201면 참조.

鶴』(~1759) 등이 전하며, 정조는 직접 『史記英選』을 편찬한 바 있다.⁴⁹⁾

마찬가지로 당송 八代家의 문집도 문선집 간행이 성행하였는데, 문장가별로 특정한 문체를 중심으로 선집을 편찬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그 중에서도 조선전기에는 한유와 유종원의 문집이 널리 보급되었는데, 특히 산문을 위주로 한 선집이 유행하였다. 예를 들면 『韓文正宗』은 議論과 敘事의 선집이며, 『당창려한선생비지』 등 4종은 碑誌類 선집이다. 아울러 『唐昌黎韓先生碑誌』와 『昌黎先生碑誌』에는 柳宗元의 碑誌나 記文이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는 특징도 있다.⁵⁰⁾ 한유와 유종원의 글을 한꺼번에 익힐 수 있도록 편집의 묘를 살린 것이다.

한편 표가 집중적으로 출제된 숙종대까지는 사류문 선집이 다수 편찬되었다. 李植의 『儻文呈選』(1631)을 필두로 숙종대까지 金錫胄의 『儻文抄』(숙종대), 柳近의 『儻文註釋』(1711), 金鎮圭의 『儻文集成』(1711)이 간행되어 표문을 익히는 전범이 되었다.⁵¹⁾ 문선집의 간행도 출제 경향에 맞추어 그 추이를 달리한 것이다.⁵²⁾

이상과 같은 간행본 외에도 개인이 편찬한抄集은 훨씬 더 다양하게 전한다. 安鼎福(1721~1791)은 평생에 다양한 초집을 만들었고, 심지어 자신의 편저를 ‘鈔書籠’과 ‘著書籠’으로 나누어 정리하기도 하였는데, ‘題鈔書籠’이라는 詩에서 책을 살 돈이 없어서 남의 책을 빌려 필사를 하고 銚書한 후 묶어서 玩賞하였다 고 술회하였다.⁵³⁾ 초집은 다량의 서책을 소장할 수 없었던 시대에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방법이었다. 楝晚柱의 『欽英』이나 黃胤錫의 『頤齋亂藁』에 등장하는 수많은抄錄은 책의 소장 방법이자 초록을 이용한 공부법의 일례라고 하겠다.

공부법으로써 초집을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은 정조였다. 정조는 『文苑叢書』를 편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보는 책이 늘어날수록 잊어버리는 것도 늘어나

49) 김소희, 2012 앞의 박사학위논문.

50) 당윤희 · 오수형, 2010 「朝鮮時代에 간행된 韓愈 詩文集 판본 연구」 『중어중문학』 47: 당윤희, 2011 앞의 논문.

51) 박우훈, 1995 「韓國의 駢文集 研究」 『국어국문학』 114; 김광섭, 2006 「17~18세기 '儻文選集'류의 편찬 양상과 그 영향에 대하여」 『어문논집』 54.

52) 17세기 표문의 출제에 대해서는 박현순, 2014 앞의 책, 81-83면 참조.

53) 김현영, 2013 「순암 이택재 장서의 형성과 산일」 『순암 안정복의 일상과 이택재 장서』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3-15면.

우리나라의 문집을 연대순으로 읽으며 좋은 문장을 뽑아 類別로 묶어 두었다고 기록하였다.⁵⁴⁾ 즉, 공부의 결과로 다양한 초집을 갖게 된 것이다. 정조는 스스로 『唐宋八子百選』 등의 다양한 문선집과 『五經百編』 등의 경서 초집을 편찬하고 간행한 바 있다.

부형들은 자질들의 교육을 위하여 엄선한 名文들을 모은 다양한 초집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스스로 교육을 위한 교재를 편찬한 것이다. 간행본 선집들의 서문에는 저술의 동기로 자질이나 후학들의 공부를 위하여 문장을 엄선하였다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등장한다.⁵⁵⁾ 이러한 수사는 사실 여부를 떠나 문인들이 초집을 편찬하는 데 많은 역량을 쏟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초집은 개인적인 학습의 결과물이자 부형이 자질에게, 선학들이 후학에게, 국왕이 민에게 제시한 보다 효과적인 교재였다.

개인적으로 편찬한 초집은 많은 경우 간행에 이르지 못한 채 초고 형태로 전하다가 일실되었다. 그러나 『선부』처럼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채 되풀이하여 간행된 경우도 있다. 『삼경사서강경』이나 『경서류초』, 『史漢一統』 등과 같은 책도 마찬가지다. 이런 책들이 간행되어 유통된 것은 그만큼 대중적인 수요에 부합했기 때문일 것이다. 수많은 초집 가운데 대중적 수요가 있는 책들이 官版으로 간행되고, 뒤이어 번각본이나 새로운 목판본, 나아가 방각본으로 간행되었던 것이다.

물론 抄集이나 選集이 반드시 과거 응시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개중에는 뚜렷이 과거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편찬된 책도 있으나 일반적인 교양서를 표방하는 책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교양과 과거 시험 과목이 중첩된 시스템 하에서 교양서는 곧 과거 수험서이기도 하였다. 어느 책이 수험서로 활용되는가 하는 것은 응시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54) 『羣書標記』 권2, 御定 2 「文苑翻譯」.

55) 『選賦抄評註解刪補』 選賦抄評序 “余之抄成此書 抄欲爲子姪備遺忘”；金錫胄, 『息庵遺稿』 권8, 「古文百選序」 “吾同宗子文氏兄弟頃自湖南俱來 從學于京師間 要余抄古今文 以便服習 余遂盡取秦漢以下至南宋諸家文 捷其菁華 拔其腴雋 滿百而止 分爲三篇 書其目而歸之。”

4. 科文集의 편찬과 활용

1) 15세기 중국 과문 교재의 간행

문인들의 창작이 사적인 글쓰기인 데 비하여 과문은 관료로서의 공적인 글쓰기를 지향한다. 과거의 시험 문제는 뚜렷한 이념적 지향성을 갖고 있으며, 답안 역시 이에 맞추어 집필된다.⁵⁶⁾ 나아가 공적인 글쓰기를 지향하는 과문은 科體라 는 독특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⁵⁷⁾ 따라서 과문을 짓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문적인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조선초기부터 국가에서는 유생들의 과문 학습을 위한 교재들을 간행하여 보급하였다. 1432년(세종 14) 세종은 유생들이 과문을 제대로 익히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과문 학습서로 『原流至論』, 『策學提綱』, 『丹墀獨對』, 『宋元播芳』과 같은 책들을 거론하였다.⁵⁸⁾ 이 책들은 전문적인 과문집은 아니지만 조선 초기 과문 학습의 기본 교재로 활용된 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중 『源流至論』은 원제가 『新箋決科古今源流至論』으로, 송 신종 때 과거 시험 문제를 策·論을 중심으로 재편하자 林馴이 그 준비를 위해 고금의 제도를 정리하여 편찬한 類書로, 중국에서도 송대 이래로 과거 준비의 참고서로 활용되었다.⁵⁹⁾ 조선에서는 과거 준비를 위한 수험서 뿐 아니라 조선 초기 조정에서 문

56) 황위주가 『이소유향』에 수록된 작품의 문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의 글체는 중국 송대 이전의 인물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 유학의 도통이나 국가의 흥망성쇠가 관련된 주제가 중심을 차지하여 뚜렷한 출제 경향이 보인다(황위주, 2014 앞의 논문).

57) 과문은 문체별로 특정한 형식이 있었고, 시기에 따라 그 형식도 변화하였다. 부의 경우 고려시대에는 읊부를 채택하였으나 충목왕대에 고부를 채택하였고, 조선에서는 계속 고부로 시험하였으나 조선후기에 고부의 형식도 해체된 것으로 평가된다(강석중, 2013 「科賦의 형식과 문체적 특징」 『대동한문학연구』 39). 황위주는 『이소유향』이라는 과문 초집에 수록된 과부들을 분석하고, 여기에 수록된 科賦는 古賦, 俳賦, 律賦, 文賦 등의 일반적인 부의 형식과 달리 6언 齊言體라는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황위주, 2014 앞의 논문, 36-37면).

58) 『세종실록』 권55, 세종 14년 3월 11일(경오).

59) 황지영, 2012 앞의 책, 77-78면.

물제도를 정비할 때 그 전거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책학제강』과 『단지독대』는 원대에 편찬된 類書로 『원류지론』과 같은 형식으로 각종 제도와 문물을 항목으로 삼아 그 연혁을 정리한 책이다.⁶⁰⁾

洪奭周는 『원류지론』에 대하여 “그 글이 論策體에 유사하니, 槟業을 위해 지은 것이다. 그러나 經術과 文章의 原流에 대해서 말한 것이 매우 소상하며 국가의 典故에 대해서는 더욱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하였다.⁶¹⁾ 『원류지론』이나 『책학제강』, 『단지독대』가 科文集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문을 익히는 교재로 활용된 것은 이처럼 제도와 문물에 대한 설명과 論策體의 문장 형식을 함께 갖추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원류지론』을 비롯한 유서는 그 뒤로는 자료 상에 등장하는 사례가 드문 것으로 보아 단종대 원대 과작집인 『三場文選』, 성종대 유서인 『事文類聚』를 간행 보급한 아래로 그 효용이 크게 줄어든 듯하다.⁶²⁾

『송원파방』은 『宋朝(聖宋)名賢五百家播芳大全文粹』와 『聖元名賢播芳續集』을 가리키는 것으로 각각 송대와 원대의 奏議類 산문을 중심으로 구성된 문선집이다.⁶³⁾ 『송파방』과 『원파방』은 조선초기 문신들에게 표문을 익히게 하는 교재로 이용되었는데, 表·箋을 과거 시험 과목의 하나로 채택함에 따라 과거 수험용 교재로도 활용되었다. 『송파방』은 1423년(세종 5) 12월에 주자소에서 경자자로 간

60) 楊賽, 2003 「祝堯 《古賦辯体》研究」, 湖南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孫福軒, 2013 「越南圖書館藏 《策學提綱》考論」『東南亞縱橫』2013-6, 浙江大學城市學院; 賈慧如, 2009 「元代類書考述」『圖書館理論與實踐』2009-7, 北京師範大學古籍與傳統文化研究院; 賈慧如, 2011 「元代類書的類型、特点与影響」『內蒙古社會科學(漢文版)』, 32-6. 『책학제강』은 원대의 저술가 祝堯가 편찬 간행한 책으로 현재 중국에는 전하지 않으며, 베트남도서관에 1713년에 간행된 월남 진사 阮儔의 주석본이 있다. 이 책은 원본의 내용을 일부 침삭하였고, 그 내용을 범례로 기록하였다(孫福軒, 위의 논문). 이 범례의 내용과 현재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필사본 『책학제강』의 목차를 비교해 보면 고려대 소장본이 축요의 『책학제강』을 필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대 소장본은 1책으로 되어 있으나 본문의 내용은 10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丹墀獨對』는 필사본 책문 선집으로 원대 유서인 『단지독대』와는 전혀 다른 책이다.

61) 洪奭周, 『洪氏讀書錄』 하 “至論原流三十卷(중략) 其文類論策體 盖爲擧業作也 然於經術文章原流言之甚詳 而於國家典故尤備.”

62) 조선시대 『사문류취』의 간행과 판본에 대해서는 민경삼, 2000 「〈〈사문류취〉〉考略」『중국어문논총』18 참조.

63) 류화정, 2013 앞의 논문.

행하여 대소문신들에게 하사한 바 있으며, 『원파방』은 1373년(공민왕 22)에 간행되었다.⁶⁴⁾ 그리고 1542년(중종 37)에는 을해자로 『송파방』과 『원파방』을 다시 간행하였다.

『송파방』은 송대 魏齊賢과 葉棻이 간행한 산문선집으로 1190년 100권으로 초간되었고, 명청대에 110권, 105권 등의 異本이 간행되었다. 『원파방』은 중국에서 는 현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⁵⁾ 조선본 『송파방』은 권1~권4, 권5 상, 권7 하가 현전하며, 『원파방』은 권1~권6만이 남아 있다.

『사고전서』에 수록된 『송파방』 明抄本은 110권본으로 모두 36종의 문체가 수록되어 있다. 이와 비교해 보면 현전하는 조선본 『송파방』 권1상에서 권7하까지는 표전편에 해당된다.⁶⁶⁾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1423년(세종 5) 『송파방』이 간행된 후에도 세종이 계속 『송파방』의 全秩을 갖추고자 시도하였다는 것이다.⁶⁷⁾ 이러한 사실은 1423년에 간행한 『송파방』이 전질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에서는 처음부터 『송파방』을 表·箋의 모범문장서로서 활용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권8 이하는 그다지 효용이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세종대 『송파방』을 간행할 때에도 100여권의 거칠 가운데 표전에 해당하는 권1~권7 부분만을 선별적으로 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파방』 권1~6은 表를 중심으로 聲, 詔, 啓赦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의 전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송파방』의 체제를 취하고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표전을 선별적으로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전기 과문 학습서로 보다 널리 활용된 것은 원대 科作集인 『三場文選』, 곧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이었다. 1429년(세종 11) 국왕이 유생들이 『삼장문선』

64) 『세종실록』 권23, 세종 6년 1월 11일(무자).

65) 張帆, 2002 「元朝詔敕制度研究」 『國學研究』 10, 北大出版社 각주7) “《圣元名賢播芳續集》是收藏于日本宮內廳書陵部的一部元文選集, 共六卷, 洪武六年高麗刻本, 國內未見流傳. 參閱周清澍《元代漢籍在日本的流傳與翻刻》, 載氏著《元蒙史札》(2001, 內蒙古大學出版社).”

66) 류화정, 2013 앞의 논문.

67) 『세종실록』 권44, 세종 11년 5월 29일(갑술): 『세종실록』 권51, 세종 13년 2월 8일(계묘): 『문종실록』 권8, 문종 1년 7월 24일(경신).

을 익히지 않는다고 비판한 기록이 있고,⁶⁸⁾ 1452년(단종 즉위년)에는 우리나라 유생들이 『삼장문선』을 모범으로 과문을 짓는다고 언급한 기록이 있다.⁶⁹⁾ 또 1472년(성종 3) 梁誠之가 국가의 시무를 논하며 『삼장문선』을 印刊하여 科文의 모범을 삼도록 하자고 청한 기록도 있다.⁷⁰⁾ 따라서 『삼장문선』은 고려 말에 전래되어 조선 초기에 과문을 익히는 전범으로 널리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장문선』은 원나라의 劉貞(字 仁初)이 1314년부터 1335년까지 원에서 시행한 8차의 과거 시험 답안을 모아 1341년 10집, 72권으로 편찬한 책으로 원말에 간행되었다. 집별로 각각 經義, 易義, 書義, 詩義, 禮記義, 春秋義, 古賦, 詔誥章表, 對策, 御試策을 수록하였는데, 문체별로 책을 뚫었다는 특징이 있다.⁷¹⁾

이 책이 언제 한반도로 전래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趙庸(?~1424)이 젊어서 국학에 있을 때 어떤 유생이 秘藏한 『文選對策』을 빌려 보았다는 기록에 비추어 보면⁷²⁾ 그가 문과에 급제한 1374년 이전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태종대 계미자본, 세종대 경자자본, 원판본의 번각본, 1454년(단종 2) 밀양부에서 간행한 경자자 번각본 등이 전하여 일찍부터 여러 차례 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 『삼장문선』이 10집으로 간행된 데 비하여 조선본은 甲集인 經義(四書義), 庚集인 古賦, 壬集인 對策 등 3책만 남아 있다. 이 중 경의편은 활자본만 확인되며, 고부편과 대책편은 원판본의 번각본, 태종대 계미소자본, 세종대 경자자본, 경자자본 번각본 등 다양한 판본이 확인된다.⁷³⁾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1454년(단종 2) 밀양부사 李皎然이 밀양부에서 『삼장문선』을 간행할 때에 孫肇瑞가 쓴 서문에 고부편만 언급하고 있고,⁷⁴⁾ 1475

68) 『세종실록』 권44, 세종 11년 5월 28일(계유).

69) 『단종실록』 권2, 단종 즉위년 8월 23일(계미).

70) 梁誠之, 『訥齋集』 권4, 「便宜四事」.

71) 黃仁生, 2003 「元代科舉文獻三种發覆」 『文獻』 2003년 1월 제1기, 复旦大學中國古代文學研究中心; 賈慧如, 2011 앞의 논문.

72) 『세종실록』 권24, 세종 6년 6월 28일(신미) “少遊國學 有一生新得元朝文選對策 寶而秘之 不示於人 廉知而借之 生不許 廉更請許借三日 生與之.”

73) 현영아, 2005 앞의 논문: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對策』(일산貴3745-39 및 일산貴3745-41) 해제.

년(성종 6) 영안도에 『삼장문선』을 하사할 때에도 策問篇과 古賦篇만을 내려 보냈다는 점이다.⁷⁵⁾ 또 『고사활요』의 책판목록에도 『삼장문선』이 아닌 『문선대책』의 책판만이 확인된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조선초기에 『삼장문선』을 간행할 때에도 전체가 아닌 경의편, 고부편, 대책편만을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1315~1333년 원의 御試 策文을 모은 『御試策』이 전하는데, 내용상으로는 『삼장문선』의 마지막권인 御試策篇에 해당된다. 이 책은 세조대와 성종대의 乙亥小字本, 성종~연산군대와 중종전반의 甲辰字本, 중종대의 乙亥小字體木活字本 등이 확인된다.⁷⁶⁾ 『삼장문선』 경의, 고부, 대책편이 권수에 서명을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책은 권수제가 '어시책'으로 되어 있으며, 다른 책들과는 판식도 다르다. 따라서 『어시책』은 고부편이나 대책편과는 별도로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개국 초기 과거제 개혁을 단행한 조선에서는 유생들에게 과문의 모범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 때 중국의 과문 교재가 준거가 되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전질을 간행하기보다는 일부를 선별적으로 간행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와 같은 간행 방식을 통하여 당시 국가에서 설정한 과문의 모범을 가늠해 볼 수 있다.

1488년(성종 19) 중국에 표류한 崔溥는 杭州에서 按察提調學校副使 鄭大人에게 조선의 科文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表는 『송파방』과 『원파방』을 모방하고, 記와 論은 唐宋을 모방합니다. 義는 5경의 大文을 뽑고, 疑는 사서의 대문을 뽑아 제목으로 삼되 모두 중국의 격식을 따릅니다. 대책은 『文選對策』을 모방합니다.⁷⁷⁾

최부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의 조선인들은 과문을 익힐 때 문체에 따라 모범으

74)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古賦』(서울대 규장각소장, 고3441-11). 8권 전질이 전하는 고부 편의 권말에 孫肇瑞가 쓴跋문이 있으며, 對策篇은 모두 落帙로跋문은 확인되지 않으나 刊記가 있다.

75) 『성종실록』 권61, 성종 6년 11월 24일(기사).

76) 千惠鳳, 1998 앞의 논문.

77) 崔溥, 『錦南集』 권2, 무신(1488) 2월 초7일 “又問曰 文章體格如何 臣曰 表倣宋元播芳 記論倣唐宋 義拈出五經文 疑拈出四書文爲題 並遵華格 對策倣文選對策.”

로 삼는 서적이 각기 달랐다. 위의 내용을 조선에서 활용된 수첩 서적과 비교해 보면 표전은 『송파방』과 『원파방』, 기와 논은 한유와 유종원의 산문선집, 경의와 대책은 『삼장문선』에 대응시킬 수 있을 것이다. 15세기 조선의 과거 공부는 국가에서 선별적으로 간행한 중국 서적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2) 16세기 조선 科文選集의 간행

조선 초기 국가에서는 科文 학습을 위한 자료로 원나라의 과문집을 간행하였으나 민간에서는 조선의 과문집에 대한 요구도 존재하였다. 1450년(문종 즉위년)의 실록에는 주자소에서 몰래 對策을 인쇄하였고, 朝官들이 자제들을 위하여 이 책을 구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鄭麟趾는 국왕에게 정식으로 『御製對策』의 간행을 청하였으나 문종은 표절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다.⁷⁸⁾ 얼마 뒤인 1452년(단종 즉위년) 성균관을 방문한 중국 사신 陳鈞의 질문에 대하여 兵曹參判 李邊은 조선에서는 科文을 印行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⁷⁹⁾ 이러한 기록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과문을 인쇄하여 배포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주자소에서 ‘어제대책’을 ‘潛印’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科文集의 인쇄와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1553년(명종 8) 과거제 개혁 때에도 사간원은 중국의 예에 따라 입격시험 중에 우수한 답안을 간행할 것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때도 우리나라의 문장은 모범이 되기 어렵다는 三公의 반대로 일이 무산되었다.⁸⁰⁾

그러나 현전하는 서적들을 통하여 16세기에 『東國壯元策』, 『東國壯元集』, 『東人策選』, 『殿策精粹』, 『東策精粹』 등 다양한 형태의 科文集이 편찬 유통되었으며, 임진왜란 직후 『震英粹語』도 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들은 모두 策文選集으로 殿策을 수록한 계열과 執事策을 수록한 계열로 나누어진다.⁸¹⁾ 전책계열로는 『동국장원책』 갑집(1396~1447)과 을집(1447~1462),

78) 『문종실록』 권4, 문종 즉위년 11월 18일(무오).

79) 『단종실록』 권2, 단종 즉위년 8월 23일(계미).

80) 『명종실록』 권14, 명종 8년 6월 9일(갑신).

81) 殿策은 전시나 중시, 알성시 등에서 국왕이 출제한 문제, 執事策은 초시나 회시에서 시

『동국장원집』(1482~1514), 『전책정수』(1408~1538)가 있고, 집사책 계열로는 『동인책선』(급제기준 1450~1496), 『동책정수』(급제기준 1513~1546)가 있다. 『진영수어』는 상권은 집사책(급제기준 1486~1564), 하권은 전책(1548~1603)으로 되어 있다.

전책계열의 책문집인 『동국장원책』과 『동국장원집』은 『삼장문선』의 예를 따라 응시한 시험연도, 시험 종류, 등수, 작성자의 이름을 기록하였으며, 판식도 거의 동일하다.⁸²⁾

『동국장원책』은 현재 갑집과 을집이 전하는데, 갑집은 1396년 식년시부터 1447년 식년시까지 24편(문과 20편, 중시 4편), 을집은 1447년 중시부터 1462년 식년시까지 26편(문과 19편, 중시 7편)의 답안을 시기 순으로 수록하였다.

『동국장원집』은 1책이 전하는데, 1461년 별시부터 1514년 별시까지 17편의 답안(문과 15편, 중시 2편)을 수록하였으나 수록 순서에 일관된 기준이 없어서 『동국장원책』과는 다른 계열로 보인다. 하지만 전체 내용을 보면 1461년 洪貴達의 별시 답안을 제외하면 시기적으로 『동국장원책』의 뒷시기에 작성한 답안을 수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판심이 ‘丙’이라고 되어 있어서 당초에 『동국장원집』 갑집과 을집의 후속편으로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후에 편찬된 『전책정수』는 1547년으로 간기가 기재되어 있다. 乾坤 2책으로 제1책에는 1408년부터 1509년까지의 답안 13편, 제2책에는 1498년부터 1538년까지의 답안 11편을 수록하였다. 이중 제1책에 수록된 13편 중 11편은 『동국장원책』이나 『동국장원집』에 수록된 글인데 비하여 제2책에 수록된 글은 앞의 책과 전혀 중복되지 않는다. 즉, 『전책정수』는 1책은 앞서 간행된 책에서 재차 선별한 답안을 수록한 반면 2책은 그 뒤에 작성된 답안을 수록하였다.

관이 출제한 문제에 대한 대책문이다. 집사책은 執冊이라고도 한다. 전책과 집사책은 문제와 답안의 형식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전책은 문제는 ‘王若曰’, 답안은 ‘臣對’로 시작되며, 집사책은 각각 ‘問’, ‘對’로 시작한다.

82) 두 책은 판식이 유사하지만 『동국장원책』이 策問을 한 글자 내려 쓰되 서두의 ‘王’자는 그대로 올려 쓴 데 비하여 『동국장원집』은 ‘王’자도 내려 썼으며, 답안의 ‘臣’字는 細字로 찍었다는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는 두 책의 간행 시기가 달랐던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17세기 초반에 훈련도감자로 간행된 『진영수어』 하권에는 1548년(金弘度)부터 1603년(李厚)까지의 답안이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전책정수』가 간행된 1547년 이후의 답안만을 수록한 것으로 『진영수어』 하권이 『전책정수』의 후속편으로 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 16세기 전책 선집의 간행 상황을 보면, 『동국장원책』, 『동국장원집』, 『전책정수』 하권, 『진영수어』 하권이 시기적으로 연결되며 15~16세기 전책의 우수 답안을 모은 과문선집이 연속적으로 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사책 선집으로는 『동인책선』과 『동책정수』, 『진영수어』 상권이 있다. 집사책 선집에 수록된 답안은 초시나 회시에서 작성한 답안으로 정확한 작성 시기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답안 작성자들의 문과 급제 시기를 보면 『동인책선』은 1434년부터 1496년, 『동책정수』는 1513년부터 1546년으로 시기가 연속되는 면이 있고,⁸³⁾ 『진영수어』 상권은 1486년부터 1564년으로 앞의 책들과 중복되는 시기가 있으나 중복되는 답안은 없다. 즉, 각각의 책은 이전에 간행된 책을 기초로 그 이후 시기의 답안을 수록한 후속편의 성격이 강하다.

이상의 사례들을 보면 국가에서는 공식적으로 과문집을 간행하지 않았으나 민간에서는 대략 16세기 초반부터 조선 과문집이 전책 선집과 집사책 선집으로 나뉘어 꾸준히 출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수록 시기별로 판식도 유사하여 『동국장원책』 두 권과 『동국장원집』, 『동인책선』은 모두 13행 17자, 『전책정수』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동책정수』 상권은 11행 20자로 간행되었으며, 각각 광곽

83) 『동책정수』의 경우 2종이 확인된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동책정수』 상권은 11행 20자이며, 화봉책박물관 소장 『동책정수』는 13행 24자로 서로 다른 판본이다. 내용을 보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11편을 실었고, 화봉책박물관 소장본은 여기에 9편을 추가하여 모두 20편을 실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권수제는 ‘東策精粹’라고 되어 있으나 권말은 ‘東策精粹上終’이라고 되어 있고, 화봉책박물관 소장본은 권수제는 ‘東策精粹卷第上’이라고 되어 있으나 권말은 ‘東策精粹終’이라고 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국립중앙도서관본은 상권에 해당하며 화봉책박물관 소장본은 보다 뒷시기에 상권과 하권을 합쳐 권의 구분없이 한 책으로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상권 부분에 수록된 奇遵의 글 「師道」는 문집에 「立師道」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데, ‘出海東策問二十首中’라는 세주가 있다. 여기의 해동책문이 『동책정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奇遵, 『德陽遺稿』補遺, 「立師道」, 13행 24자본은 산기문고에도 소장되어 있는데 실물을 확인하지 못했다.

의 크기나 어미도 유사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미루어 볼 때 각 시기에 전체계열과 집사책계열의 과문집이 함께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책들을 누가 간행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전체정수』의 경우 ‘嘉靖丁未(1547)歲仲秋下澣慶州京邸開印’이라는 刊記가 있다. 京邸란 지방군현의 도성내 출장소로 京邸吏가 상주하며 각종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곳이었다. 왜 이 곳에서 간행이 이루어졌는지는 미지수다. 문종대 주자소에서 어제대책을 潛印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이 역시 수요에 부응하여 비공식적으로 출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⁸⁴⁾

조선전기 과문선집은 현전하는 숫자가 많지 않으며, 관련된 기록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17세기 초 훈련도감자로 간행된 『진영수어』는 조선후기 서원이나 향교의 소장 도서 목록에서도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⁸⁵⁾ 또 문집 가운데는 과문이 『진영수어』에 실렸다는 것을 특기한 사례들도 보인다.⁸⁶⁾ 나아가 현재에도 상당히 많은 종류가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어서 비교적 널리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70년(현종 11) 李聃命의 책문이 違格 논란에 휩싸였는데, 부친 李元禎은 『진영수어』에 수록된 金弘度와 南瑾의 책문을 근거로 위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科場의 程式을 위하여 『진영수어』를 간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⁸⁷⁾ 그러나 반대하는 측에서는 『진영수어』가 詞藻의 美를 취했을 뿐 規式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⁸⁸⁾ 사실이야 어떻든 『진영수어』가 널리 알려진 과문선집이었음에는 틀림없다.

84) 유사하게 민간에서 간행된 論의 선집도 있는데, 이 책에는 科文이 아닌 글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심경호, 2002 앞의 논문).

85) 『嶺南各邑校院書冊目錄』에는 경주 옥산서원, 서악서원, 향교 소장 도서 가운데 『진영수어』가 있다.

86) 楊應鼎, 『松川集』 권3, 策; 李德馨, 『漢陰文稿』 부록 「漢陰先生年譜」; 『鵝溪李相國年譜』; 趙顯命, 『歸鹿集』 권14, 「贈參判任公墓誌銘」.

87) 『현종실록』 권11, 현종 11년 11월 14일(정묘).

88) 『승정원일기』 현종 11년 11월 23일(병자); 『승정원일기』 현종 11년 11월 27일(경진).

〈표 3〉 16세기 조선 科文 選集

서명	답안시기	서지사항	기타	비고
東國壯元策(甲集)	1396년 ~1447년	1책. 목활자(을해소자) 四周單邊 반파 18.4×11.0cm 有界 13行17字 黑口 內向黑魚尾 24.0×14.4cm	권수제: 東國壯元策 甲集 수록편수: 24편 소장: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도서관, 성암고서박물관, 화봉책박물관	殿策
東國壯元策(乙集)	1447년 ~1462년	1책. 木活字(倣乙亥小字) 四周單邊 반파 18.6×11.3cm 有界 13行17字 上下黑口 內向黑魚尾 26.2×15.3cm	권수제: 東國壯元策 판심제: 乙集 권말: 東國壯元策文 乙集 수록편수: 26편 소장: 고려대도서관, 화봉책박물관	"
東國壯元集(丙)	1461년 ~1514년	1책. 木活字(倣乙亥小字木活字) 四周單邊 반파 18.3×11.4cm 有界 13行17字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3×15cm	권수제: 東國壯元集 판심제: 丙 수록편수: 17편 소장: 서울대 규장각, 고려대도서관,	"
殿策精粹	1408년 ~1538년	2권 2책. 목활자본 四周雙邊 半郭 21.5×14.1cm 유개 11行20字 黑口 上下內向細花紋魚尾 28.2×17.6cm	권수제: 殿策精粹 간기: 嘉靖丁未(1547)歲仲秋下澣慶州京邸開印 수록편수: 상 1408~1509 13편(11편 중복) 하 1498~1538 10편 소장: 서울대 규장각	"
東人策選	[1434년 ~1496년]	1책. 목활자 四周單邊 半郭 18.7×11.4cm 유개 13행17자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3.7×14.9cm	수록편수: 27편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 규장각, 화봉책박물관	執事策
東策精粹	[1513년 ~1546년]	1책. 목활자본(을해자체) 四周單邊 半郭 21.3×14.2cm 유개 11行20字 上下黑口 內向3葉花紋魚尾 25.9×18.5cm	권수제: 東策精粹 권말: 東策精粹上終 수록편수: 11편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
	"	1책. 목활자 四周單邊 有界	권수제: 東策精粹 卷第上 권말: 東策精粹終 수록편수: 20편	"

		13행 24자 細黑口 上下內向難魚尾 29×19cm	소장처: 화봉책박물관 (山氣文庫)	
震英粹語	[1486년 ~1603년]	2권 2책. 목활자본(훈련도감자) 四周雙邊 半郭 24.7×15.8cm 9行17字 上下內向細花紋魚尾 31.1×19.6cm	수록편수 상(집사책): 1486~1564 10편 하(전책): 1548~1603 10편	執事策 · 殿策

3) 필사본 科文 抄集의 편찬

조선의 과문을 모은 선집은 과문의 형식을 익히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던 만큼 항상적으로 그 수요가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영수어』 이후에 간행된 조선 과문선집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 조선전기에 간행된 『삼장문선』이나 조선의 과문선집을 과문 학습서로 활용하였다는 기록도 보이지 않는다. 대신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필사본 과문집들이 여러 기관과 문중 등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한 예로 順菴 安鼎福가의 소장 자료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전적들 가운데 과문 초집은 19종이 확인된다.⁸⁹⁾ 나아가 이 집안 藏書의 書目에서는 더 많은 수의 과문 초집이 확인된다. 이 때문에 안정복 가 관련 장서 중에는 유독 과거 관련 초록 자료가 많은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⁹⁰⁾ 이것은 비단 안정복 가만의 문제는 아니다. 각 문중의 소장 전적 목록에서는 쉽게 상당한 양의 과문집을 발견할 수 있다.

안정복 가에 소장된 과문 초집의 서명은 『東表』, 『科表』, 『科儻』, 『東表策』처럼 과문집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있으나 『光被補遺』, 『龍梯』, 『杠筆』, 『西湖』,

89) 순암 안정복 가의 서적은 1927년 이전 조선총독부 도서관, 경성제대 도서관, 이왕직 도서관, 기타 개인 등에게 매각되었으며, 현재 그 책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작성한 장서목록이 여러 건 남아 있어서 도서의 소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순암 안정복 후손 가의 장서목록에는 517종 2,265책이 기재되어 있는데, 조선총독부 도서관에서는 99종 241책을 구입하였다. 김현영, 2013 앞의 논문.

90) 이해은 · 김효경, 2013 「순암 안정복의 장서의 수집과 그 특징」 『순암 안정복의 일상과 이택재 장서』, 성균관대학교출판부, 38면.

『剩工』, 『臥草』 등과 같이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책의 성격을 판별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과문집은 서명으로 확인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필사본 과문 초집은 서명은 동일하더라도 내용은 모두 다르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특징이다. 가령 국립중앙도서관에는 『東表』 3종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모두 다르다.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에서는 『동표』라는 제목의 책 12 종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어느 하나도 동일한 책은 없어 보인다. 또 초집 중에는 합격 답안만을 모은 경우도 있고, 개인의 저술을 모은 경우도 있어서 그 성격도 동일하지 않다. 과문 초집 전체를 일별하여 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래에서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안정복 후손가 과문 초집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과문 초집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안정복 가 구장 과문 초집은 그 성격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小策』, 『東表策』, 『古賦東』, 『東表』, 『科表』 등과 같이 타인이 저술한 과문의抄集으로 문체별로 여러 작자의 문장을 뽑아 필사한 것이다. 작자와 답안을 작성한 시험, 성적이 밝혀져 있는 경우도 있으나 글제와 답안만 수록한 경우도 많다. 이 중에는 실제 합격한 답안 외에 개인적으로 작성한 습작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¹⁾ 즉, 초집은 문체별로 입격 답안은 물론 세간에 유포된 우수한 글이나 주변 인물들의 작품들을 총망라하여 작품을 선정한 것이다.

또 하나는 『策稿』, 『杠筆』, 『大對』, 『疑私』 등과 같이 개인의 習作을 수록한私集이 있다. 사집 역시 문체별로 정리되어 있는데, 안정복가의 장서 목록에는 이외에도 『詩私』, 『賦私』, 『表私』, 『義私』, 『策私』 등이 존재하여 문체별로 각각私集을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91) 가령 안정복 외증조의 친필로 전하는 『科儻』에는 李殷相과 본명을 알 수 없는 景益의 작품이 네 편씩 등장한다. 또 작자를 號나 字로만 밝힌 경우도 많아 주변 인물의 작품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안정복 가 구장 科文 抄集

분류	표제	저작시기 ⁹²⁾	편수	비고
대책	小策	전면: 명종~인조대 이면: 숙종대	28편	집사책. 권말: 己酉月日書
대책·표	東表策	집사책: 1610년~1683년* 전책: 1639년~1694년* 표: 1709년~1723년*	54편	집사책 16편 전책 8편 표 30편
표	科儀	선조대~현종대	88편	외증조진사군(李榮漢) 필적
표	科表	1712~1736*	112편	안정복 자필
표	光被補遺	전: 1778~1783 곤: 영조대후반~정조13년		전: 光被 권2 곤: 光被補遺
표	東表	숙종대	108수	
표	在笥	18세기 전반	183수	姜啓溥(1675~?), 權納(1708~?)의 작품 중심
참명조	剩工	16세기~1738년*		안정복자필
부	古賦東	1597년~1640년*	53수	
부	賦東	1754년~1760년		안정복 인장 사학 승보시 합체 답안
시	西湖	1738년~1750년	123수	사학의 과시 답안 尹景曾의 丁課錄(1757)

안정복 가 구장 과문 초집에 수록된 작품의 집필 시기를 책별로 보면 길어도 50~60년에 그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영조대에 작성된 부의 초집인 『賦東』과 시의 초집인 『西湖』의 경우 수록 시기가 10년 전후에 그친다. 이처럼 수록 작품의 집필 시기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과문 초집이 이른 바 ‘時文’의 학습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록된 작품도 四學에서 시행하는 陞補試와 合製의 작품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정복의 아들인 安景曾(1732~?)의 수학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참명송의 경우 16세기부터 1738년까지 상당히 넓은 시기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영조대 초반에 전례 없이 참명송이 자주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전까지의 작품을 보다 폭넓게 수록할 필요가 있었던 때문일 것이다. 즉, 출제 경향이나 응시자의 상황에 맞추어

92) 본문에 저술 연도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답안 작성자의 문과 급제 연도를 정리하고, *로 표시하였다.

시의성을 갖춘 초집을 편찬한 것이다.

안정복 가 구장 과문 초집의 집필 시기는 문체별로 차이가 있다. 우선 『소책』과 『동표책』에 수록된 對策은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후반에 집필된 작품이다. 이에 비해 表文의 경우는 『科儻』처럼 17세기 작품을 실은 경우도 있으나 나머지 『東表』, 『東表策』, 『科表』, 『在笥』 등은 숙종대 후반~영조대 초반, 『광피보유』는 정조대의 작품들로 18세기 작품이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차이는 17세기와 18세기 문과 및 성균관 시험의 출제 경향과 유사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조선시대 문과에서는 전통적으로 책문을 중시하였으나 숙종대 이후에는 表箋類의 출제 빈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그 후 영조대부터는 출제 경향이 바뀌어 賦가 중심을 차지하였는데, 정조대에는 다시 성균관 시험에서 表箋을 자주 출제하는 변화가 있었다. 안정복 가 구장 대책문과 표문의 초집류는 당시의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작성한 초집인 셈이다. 잡명송의 초집인 『剩工』이 1738년 이전의 작품을 종합 수록한 것도 영조대 초반 출제 경향의 변화에 대응한 것도 마찬가지다.

안정복 가 구장 科文 私集은 작성자나 작성 시기를 파악하기 어렵다. 殿策을 수록한 『大對』는 第二從祖의 策私라고 밝혀 숙종대 즈음에 작성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나머지 경우는 필체로 기록자를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私集은 習作으로 수정을 가한 경우도 있으나 보다 많은 경우는 개인의 작품을 정서한 것으로 간혹 작성 시기를 밝힌 경우도 있다. 습작은 시험 준비의 마지막 단계로서 출제 가능한 문제들을 예상하고 답안을 작성한 모의답안이다. 특히 『策稿』라는 책에는 ‘姜考’, ‘朴考’라는 어구와 성적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습작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일종의 모의고사인 셈이다.

이렇게 작성된 私集은 작성자 본인은 물론 후손들에게도 학습의 자료가 된다. 안정복 가의 여러 사집에서는 문장의 형식에 해당하는 어구에 선을 긋거나 좋은 구절에 批點을 찍어 두어 사집을 학습 자료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서의가 수록된 『안정복일기』 24의 끝에는 ‘疑心東人’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疑心’이란 四書疑의 핵심 · 정수를 파악한 글을 가리키는 것으로 곧 사서의의 모범 답안을 의미한다.⁹³⁾ 선조가 만든 私集을 모범답안으로 공부에 활용한 것이다.

명종대 사간원에서는 경서에서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글에 능한 부형이 經義를 제술하여 후손에게 전하면 대대손손 생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⁹⁴⁾ 또 윤기는 후손들이 조상들의 과문 사집을 애지중지하며 과장에서 활용하려는 풍조를 비판한 바 있다.⁹⁵⁾ 조상이 정리한 과문 사집은 예상 문제와 답안을 정리한 예비답안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후손들이 언제든지 답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秘書’였던 셈이다. 안정복이 자필로 직접 정리한 四書疑의 사집은 후손들에게 남긴 遺產이었는지도 모른다.

〈표 5〉 안정복 가 소장 科文 私集

분류	효제	비고
대책	杠筆	집사책. 응시 기록 있음
대책	大對	전책. 제2종조부(安瑞旭)策私. 안정복 자필
대책	策稿	채점자(姜考/朴考) 및 성적 기재
효	龍梯	일부 작성 시기 기록(月課)
사서의의	疑私	안정복 자필
사서의의	安鼎福日記. 24: 東表	작성시기 수록. 正書本 권말: ‘疑心東人’ 서명 오류
사서의의	安鼎福日記. 21: 四書疑義	습작
사서의의	安鼎福日記. 22: 臥草	습작
사서의의	安鼎福日記. 38: 策問	습작. 서명 오류

규장각에 소장된 과문집도 동일하게 과문 초집과 과문 사집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규장각에는 안정복 가와 달리 『科儻規式』과 같은 作法集, 『빈홍록』처럼

93) 『광해군일기』 권43, 광해군 3년 9월 21일(정사) “司諫院啓 (중략) 故其中粗解四書疑模樣者 名之曰疑心板 及其試日 舉子等轉相告語曰 某接有疑心板 舉場奔波 無異闡市甚者.”

94) 『명종실록』 권14, 명종 8년 6월 9일(갑신) “諫院啓曰 (중략) 或有能文之人 盡述一經之義 傳于子孫 而世世能中生員者.”

95) 尹愬, 『無名子集』 文稿冊 10, 「預作遺戒」 “今之人 其先世有功令業私稿 則必效而習之 謄而藏之 惟恐失之 此無他 將以僥倖於場屋也.”

시험별 우수 답안을 수록한 科作集, 『京外題錄』, 『科題各體』처럼 시험문제만을 정리한 문제 초집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과작집이나 문제 초집은 시험마다 우수 답안을 중앙 정부에 보고하고 이를 정리하여 보관하도록 한 행정의 산물이다.⁹⁶⁾ 나아가 정조대부터는 문제와 답안을 문제별로 정리한 『臨軒題總』과 『臨軒功令』이 남아 있다. 이처럼 조정에서 시험별로 정리한 우수 科作이民間에 유통되며 초집으로 편찬되기도 했을 것이다.

규장각 소장 과문 초집이나 사집은 안정복 가 자료와 성격이 유사하다.⁹⁷⁾ 서명에 있어서도 『科賦』, 『科表』, 『東策』, 『策稿』, 『時儻』 등 유사한 제목들이 많다. 다만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상당한 巨帙들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그 중 하나는 『科賦抄集』(奎 7499-v.1~31)으로 무려 31책에 3,000여수의 부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의 표제는 『同人』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사람이 함께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取大』라는 책은 표문을 필사한 책인데, 1책에 984수, 2책에 631수, 3책에 1,664수, 도합 2,664수가 실려 있다. 이와 같은 거질은 지방에서도 확인되는데, 18세기 賦의 초집인 『離騷遺香』에도 1,300여수가 실려 있다.⁹⁸⁾

거질이 등장하는 것은 私集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과표사집』은 자신이 지은 표문을 3책으로 나누어 주제별로 엮은 책인데, 1책에 149편, 2책에 155편, 3책에 124편 등 도합 428수가 실려 있다. 문과, 洋製, 초계문신제술 등에서 지은 글은 작성 시기와 성적, 시상 내역 등을 기록해 두었는데, 이를 추적하면 작자는 丁若鏞으로 확인된다. 정약용은 스스로 성균관에 들어간 후 변려문에 골몰하였다고 술회한 바 있는데,⁹⁹⁾ 『과표사집』을 통하여 그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96) 예를 들면 1770년 『庚寅七夕製科作』, 『庚寅九日製科作』, 『辛卯式年功令文』 등이 있는데, 이 책과 함께 1770년에 시행된 경기도 공도회, 친림정시 등의 과제작을 모은 『科作』이라는 책도 남아 있다. 이 중 『庚寅七夕製科作』에는 ‘弘齋’, ‘震章’, 『科作』에는 ‘春宮’이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다. 장기간에 걸쳐 사학의 승보시와 합체, 성균관 반제, 증광시·식년시 등의 우수 답안을 모은 책들이 규장각에 다수 소장되어 있다.

97) 규장각 소장 도서 중에서는 현재까지 필사본 科作集 23종, 抄集 28종, 私集 3종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외에도 다수의 과거 수험서가 존재할 가능성이 많다.

98) 황위주, 2014 앞의 논문.

99) 丁若鏞, 『茶山詩文集』 권21, 「寄二兒」(임술 12월 22일 康津謫中) “弱冠始專心科學 既入太學 又汨沒於駢儻之文 轉隸閣課 埋頭於雕蟲篆刻之工 猶將十年。”

이처럼 많은 글을 지은 것은 비단 정약용만은 아니었다. 정조는 유생들을 만나 평소에 글을 얼마나 지었는지 묻곤 하였는데, 대부분의 유생들이 부나 표 수백수를 지었다고 답하였고, 심지어 부 수천수를 지었다고 한 유생도 있었다.¹⁰⁰⁾ 1795년(정조 19) 2월 應製에 입격한 유생 88명을 대상으로 부·표·시·책의 습작 편수를 조사했을 때의 1인당 평균 작품수는 부 403수, 표 298수, 시는 183수였다. 또 표를 지었다고 응답한 66명은 평균 397수, 시를 지었다고 응답한 26명은 평균 619수를 지은 것으로 나타나 『과표사집』에 기록된 428수가 특별히 많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¹⁰¹⁾

거질의 초집이나 사집은 그 구성도 보다 체계화되어 있다. 『取大』나 『과문사집』은 표문의 종류를 賀表, 謝表, 請表, 進表 등으로 분류한 후 각각을 글제의 대상 시기순으로 정리한 후 목차를 수록하였다. 수백 수천편이 수록된 이 목차는 출제가 예상되는 글제들의 목록이기도 하였다. 나아가 수록 작품 중에는 습작으로 지어진 작품이 많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제 시험에서 응용이 가능한 모의 답안이기도 하였다.

숙종대 남구만은 표제의 출제가 역사서로 한정되기 때문에 과문 수천수를 초집하여 익히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¹⁰²⁾ 또 영조대에는 평소에 千首表를 지어 시험장에서 문제에 상관없이 답안을 금방 작성하는 자들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¹⁰³⁾ 많은 작품을 섭렵하고 많은 습작을 통해 예상문제와 예상답안을 익힌 후 과장에 들어가는 것도 과거 공부법의 하나였던 것이다.

과문 초집은 비단 조선후기에만 작성된 것은 아니다. 이미 『세종실록』에도 유생들이 傑輩들이 지은 글을 초집으로 만들어 시험 때 표절을 한다는 지적이 있다.¹⁰⁴⁾ 또 이식은 科文을 익히는 과정의 하나로 과문 초집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100) 『승정원일기』 정조 6년 10월 24일(정해) “上曰 爾之賦工 爲幾何乎 昌履曰 至三千首矣
(중략) 上曰 工於賦 爲幾首乎 龍倪曰 爲數千矣.”

101) 『일성록』 정조 19년 2월 13일.

102) 『승정원일기』 숙종 20년 7월 13일(기묘) “領議政南九萬曰 (중략) 且表題 不過出於歷代史記 故若抄聚東人數千首 則逢前作者頗多 兼有寫手 故不能製不能書 而冒占科第者居多.”

103) 『영조실록』 권19, 영조 4년 9월 24일(신미).

익힐 것을 권장하였다. 과문의 초집을 활용한 공부법은 일반적인 과거 공부법의 한 단계였다. 다만 조선후기에는 과거를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과문 초집을 활용한 공부법이 더 발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험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기본 교재보다는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험서가 발달하기 마련이다. 특히 조선후기에는 古文과 科文, 곧 時文 사이의 간극이 갈수록 커지며, 문장에 능한 자와 과문에 능한 자가 뚜렷이 구분되었다. 물론 뛰어난 문장가는 과문에도 능하였겠으나 과문에 능한 자가 모두 명문장가는 아니었다. 고문과 과문은 그 영역이 나뉘어져 있었다.

정약용은 문장에 대해 논하며, 科文이 가장 어렵고, 吏文이 그 다음이며, 古文은 그 중에서도 쉬운 편이라고 평하였다. 그리고, 古文으로 문장을 익혔을 때와 科文으로 문장을 익혔을 때의 차이를 논하였다.¹⁰⁵⁾ 윤기 역시 類書와 科作을 위주로 한 당시의 과거 공부법을 비판하였다.¹⁰⁶⁾ 그만큼 과문으로 문장을 익히는 사람들이 많았던 탓일 것이다.

필사본 초집은 간행본 문선집이나 과문 선집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문선집은 권위 있는 중국 문인의 名文을 통해 문장을 익히기 위한 것으로 문장 수업의 기초가 되었다. 과문 선집은 우수한 답안을 통해 과문을 짓는 법을 익히는데 주목적이 있었다고 하겠다. 필사본 초집은 과문 선집보다 수록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고 직접적으로 당대에 유행하고 있는 ‘時文’을 익히는 데 보다 주안점을 두었다. 나아가 거칠의 초집과 사집은 예상문제집과 예상답안집으로서 과거 응시에 보다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집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5. 맷음말

조선시대 문과는 文翰官僚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으로 업무 능력에 상응하도록

104) 『세종실록』 권44, 세종 11년 5월 28일(계유).

105) 丁若鏞, 『茶山詩文集』 권18, 「爲茶山諸生贈言」.

106) 尹愬, 『無名子集』 文稿册 10, 「讀書次第」.

시험 과목을 선정하였다. 이 과목은 곧 관학의 교육 과정으로 자리 잡았다. 국가에서는 이에 맞추어 사서오경 등의 경서와 역사서, 문장서들을 간행하여 지방 향교에 보급하였다. 또 科文의 작성을 위해서는 『송파방』과 같은 중국의 산문집과 『삼장문선』과 같은 원대 과문집을 선별적으로 간행 보급하였다. 기본 교재와 전범이 되는 과문집을 간행하는 것은 국가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실제 수험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달랐다. 응시자들은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방대한 기본교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원했고, 또 보다 직접적으로 科文의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조선의 과문집을 원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사적인 영역에서 경서의 가공과 역사서·문장서의 抄集, 과문 초집이 성행하였다. 그러나 기본교재의 가공서와 과문 초집의 유통 양상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개인적으로 편찬된 경서나 역사서·문장서의 초집이나 가공서는 사적인 활용을 통한 검증 과정을 거쳐 지방 군현을 통하여 목판본으로 간행되는 사례들이 많았고, 번각본과 방각본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기본교재의 가공서 출판은 정조의 예처럼 국가에서 직접 담당한 경우도 있으나 주로 지방관들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이에 비하여 과문집은 16세기 壮元의 과문을 모은 선집이 간행되기도 하였으나 조선후기에는 사적인 형태의 필사본으로 활용되었으며, 그 편찬 방법은 더욱 진화하였다. 우수 답안을 위주로 한 과문 초집은 과문을 익히는 부교재로 활용되었으며, 習作이나 私集을 포함한 초집들은 시험에서 직접 응용할 수 있는 예상 문제와 모의 답안을 제공하였다. 그 가운데 巨帙의 초집이나 사집들도 등장하였다. 그러나 초집의 성행은 출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6세기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조선 과문 선집의 간행이 오히려 응시자가 급격히 증가한 17세기 이후에 중단되었다는 점은 의아한 일이다. 필사본 과문 초집의 양을 보면 이 일은 쉽게 수긍이 갈 듯하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응시자들은 더 많은 과문을 원했지만 16세기에 간행된 장원 중심의 과문 선집은 많아야 20여 편의 글을 수록했을 뿐이다. 조선의 출판 상황은 응시자들의 수요를 따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과문선집이

간행되지 못하고 장원집계통의 간행마저 사라지는 것은 주목되는 현상이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각도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과문 초집의 성행에도 불구하고 과거 공부는 기본 교재의 학습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조선의 과거 공부법, 나아가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공유한 기초 교양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 교재와 그 공부법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과거 수험서, 科舉, 科文, 選集, 抄集

투고일(2015. 2. 18), 심사시작일(2015. 3. 3), 심사완료일(2015. 3. 10)

〈Abstract〉

Examination Aids for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the Chosŏn Dynasty

Park, Hyun Soon *

The purpose of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held during the Chosŏn Dynasty was to select civil officials for the government. The preparation process for the examination begins with studying Confucian classics, history books, and various texts on sentences. Especially, Kwamun(科文) was a writing equipped with specific style that required professional learning. Moreover, since the primary goal of the examination was centered on passing the exam itself, it required more efficient learning process. For these reasons, various practical examination aids were published to help prepare for the examin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examination aids produced in the Chosŏn Dynasty to understand the preparation process for the state examination during the Chosŏn period. In particular, what kind of text books were studied by the candidates for the examination and how the books were produced and circulated during the period will be examined.

Key Words : Examination Aids, Civil Service Examination, Kwamun(科文), Literary Anthology, Collections of Excerpts

* Assistant Professo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